

TV 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6-12 showing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한상진 “왕 역할 처음... 이보다 좋을 순 없다”

MBC '마의'서 현종 역... '곤룡포 입으면 마음가짐 달라져'

“이번에는 왕이라고 하기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왕 역인 거예요.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남자 배우에게 왕 이상의 역이 어디 있겠어요. 또 제 아내는 저 덕분에 갑자기 중전이 된 거잖아요?” (웃음) 한상진(35·사진)은 이렇게 말하며 껄껄 웃었다.



MBC TV 월화 사극 '마의'에서 조선 18대 임금 현종을 연기하는 그를 지난 4일 전화로 만났다. '마의'가 인기를 끌면서 다양한 등장인물에 고루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한상진이 연기하는 현종 역시 열린 마음을 지닌 개혁 군주로서의 모습으로 사랑받고 있다.

이를 닮고 세수를 하는 모습에서부터 통증을 아파하는 모습이 '충실'하게 그려지고 심지어 현종의 변까지 화면에 등장한다. “이병훈 PD님이 철저하게 고증을 하시는 분이려 이를 닦는 것도 진짜로 나뭇잎에 소금을 묻혀 닦았죠. 그런데 왕이 야외에서 세수하던 날이 하필 영하 4도라 얼어 죽을 뻔했어요. (웃음) 화면에는 여유 있게 세수하고 이 닦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주변 연못물이 다 언 상태였어요.”

지난 3~4일 방송에서는 현종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죽음의 고통을 맞보다 백광현의 지혜와 혜안으로 극적으로 살아나는 이야기가 펼쳐졌다. 한상진은 자리를 보전할 채 고통에 몸부림치는 연기를 펼쳤다. “결과적으로 탐식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탐식이 실제로 이성을 잃게 하는 통증을 준대요. 진짜 죽을 것 같이 아픈 연기를 펼쳐야 했던 거죠. 이순재 선생님께서 ‘너 아픈 연기 잘하더라’라고 칭찬해주셔서 기분 좋았어요. (웃음) 재밌는 건 제가 ‘하안거탑’을 할 때 간단해 전문의였다는 겁니다. 그는 이병훈 PD의 2007년 작 MBC ‘이산’에서 정조시대 문신이자 충신인 홍국영을 연기하며 주목받았다. 지난해에는 SBS ‘뿌리깊은 나무’에서는 세종시대 집현전 학자 심종수 역으로 방점을 찍었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6일 (음 10월 23일 辛丑)

Table of daily horoscopes for various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with corresponding animal icons and text.

EBS EBS플러스1 and EBS플러스2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time slots.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four columns: 1. 'We're out of gas'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2. '濯纓濯足' (탁영탁족), 3. '枕營業' (zhényíngyè), 4. '火事が起きる' (火事が起きる). Each column includes a title, a short story or explanation, and a quiz question.